



20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체급별 남녀 유도선수권대회 90kg급 준결승전에서 수원시청 황희태(흰색 도복)가 수원시청 최선호를 넘어치기로 넘기며 절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협, K-리그 조정안 거부

23일 대표팀 소집 강행키로

축구대표팀 소집 갈등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축구협회는 20일 아시안컵 대표팀 소집일을 K-리그 정규 시즌 14라운드 경기(23일) 다음 날인 24일로 늦춰달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무 협회 기술위원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김 배어백 대표팀 감독을 만나 마지막 답판을 밝혔지만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조직력 극대화를 위해선 단 하루도 양보할 수 없다'는 배어백의 논리를 바꾸지 못했다.

협회는 전날부터 두 차례 간부회의를 열어 'K-리그 활성화를 위해 하루를 양보하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놓고 속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 배어백 감독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최종적으로 프로연맹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또 협회 규정에 따른 '14일 전 소집일'이 23일이라 스스로 규정을 무너뜨리려는 곤란하다는 내부 반대로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표 선수들은 23일 리그 경기가 뛰지 않고 당일 오전 9시 김포공항에 집결해 곧장 1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도로 떠나게 됐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광장환 회장 명의로 '대표팀 소집을 고려해 통상 토·일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던 리그 경기를 토요일 하루로 몰아넣었다. 리그 활성화를 위해 하루만 소집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축구협회의 이번 결정으로 각 구단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된 한국태권도 살리고 싶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복귀 선언

선수 복귀를 결정한 태권도 스타 문대성(31) 동아대 교수가 침체한 한국 태권도에 새 바람을 불어 넣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80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현역에서 물러나 모교 동아대에서 감독 겸 교수로 지도자의 길을 걸은 문대성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수 복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대성은 먼저 “올림픽의 영광에 만족해 너무 일찍 은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후배들이 외국 선수들에게 어렵게 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특히 최종 랭급에서 패배로 종주국의 기술적 권위가 흔들려 더욱 안타까웠다”고 선수 복귀 배경을 전했다.

문대성은 이어 “최근 대한태권도협회와 +80kg급을 올림픽 출전 체급으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많은 생각을 했다. 다시 도전하면 후배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과연 치열한 국내 선발전을 통과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한번 더 열정을 쏟아 도전하는 것이 나 자신은 물론 한국 태권도에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후배들이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월 말 이미 부산시태권도협회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마친 문대성은 “3년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과 같이 훈련해 와 예전의 몸 상태를 찾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 달 정도는 미세한 근육을 키우는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실업연맹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 뒤 11월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나설 계획인 문대성은 “경기 감각을 끌어 올려 대표 선발전 때는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IOC 선수 위원에 대한 꿈도 갖고 있는 문대성은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가대표 선수와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 올림픽에 못 나가도 선수 생활을 계속 할 것이다.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여수시청 유광선 우승

유도선수권 남 100kg급 이하

유광선(여수시청)이 제46회 전국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유광선은 20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100kg급 이하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장성호를 유호 2개를 따내 우세승을 거둔 후 결승전에서 임승록에게 역시 우세승을 거둬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순천대 이현주·장하나

대통령기 양궁 남녀 금

이현주(순천대 2)와 장하나(순천대 3)가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현주는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여대부 70m에서 335점을 쏘 1위를 차지했다. 장하나도 여대부 30m에서 357점을 명중시켜 결승대 홈지연을 1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지(순천대)는 여대부 60m에서 340점을 쏘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한편 이날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선발전에서 서정희(순천대 4)는 70m 341점, 60m 349점, 50m 339점, 30m 357점을 쏘 우승과 함께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따라서 서정희는 오는 7월 7일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제44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천수 “열 받네”

프리미어리그 이적 추진 놓고

영국 언론들 냉소적인 반응

이천수(26·울산 현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이적 추진에 대해 영국 언론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유로스포츠’는 20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의 이적설을 전하는 코너에서 “서부 런던을 연고로 한 첼시와 풀럼이 이천수와 계약하려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수를 영입하려는 이들의 열의는 이천수의 축구 실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유로스포츠’는 “작고 빠른 공격형 미드필더 이천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험도 있는 좋은 선수”라고 소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두 구단의 스폰서에겐 큰 뉴스”라며 이천수에 대한 관심은 마케팅 측면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첼시와 풀럼이 한국 전자업체 이름을 유니폼에 달고 뛰며 이천수를 그라운드 안이 아닌 밖에서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첼시는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고 있고, 풀럼은 LG전자가 다음 시즌부터 스폰서를 맡는다.



- 21일(목) ▲메이저리거(보스턴-애틀랜타)(08:25·Xports)
- ▲김천 ITF 국제테니스대회(13:50·MBC)
-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 결승(13:50·SBS스포츠)

-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3차투어 1R(14:00·Xports·KBSN Sports)
- ▲제46회 체급별남녀유도(14:10·KBS1)
- ▲프로야구(삼성-LG)(18:00·KBSN Sports), <롯데-SK>(18:20·SBS스포츠), <KIA-한화>(18:30·MBC ESPN) 22일(금)
- ▲PGA투어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1R(04:00·SBS스포츠)

전남 생활체육 배구대회 합평서 개막

2008년 합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기원 전남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배구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합평문화체육센터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배구 생활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50개팀의 임원과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기원

23일부터 이틀간 50개팀 참가

남자부에서는 클럽부와 장년부, 여자부는 클럽부 경기가 펼쳐지며 우승배와 준우승배, 각 부별 개인상이 시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M관 검은집 (18세)	최고급관
2관 오션스 13 (12세)	
3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5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6관 두번째 사랑 (18세)	
7관 러브앤티트러블 (15세) / 황진이 (15세)	
8관 검은집 (18세)	
9관 4.4.4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데스위터 (15세)	
5관 슈렉3 (전체)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항동시청 영화시청 *에매:www.joycbs.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슈렉3 (전체/자막) / 러브&트러블 (15세)	
2관 <아린이전용관> 나루토 (전체/터빙)	
3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슈렉3 (전체/자막)	
5관 4.4.4 (18세)	
6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7관 검은집 (18세)	
8관 밀양 (15세)	
9관 황진이 (15세)	
10관 오션스13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개관) 절친리 상영중 상무점연결 방법 -1번(02번)→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2관 두번째 사랑 (18세)	
3관 슈렉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오션스13 (12세)	
7관 황진이 (15세)	
8관 메신저 (15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오션스13 (12세)	
2관 검은집 (18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4.4.4 (18세)	
5관 슈렉3 (12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